

선물을 준 자의 마음 ♪

조 집사님께서 커다란 책장 2개를 주셨습니다.
책장의 길이는 무려 240cm, 높이는 180c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.
작은 우리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다시 줄여서 넣어 주셨습니다.
그런데 1주일 정도 지난 후 우리 집에 들르셔서
그 책장이 넣어주신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
좋지도 않은 책장을 준 것이 아니냐고 마음 쓰시는 것이었습니다.
그것이 아닌데, 도저히 책장을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인데...
우리 책꽂이는 거의 다 내려앉아서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태였고
주신 그 책장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선물이었습니다.
이 일을 통해 선물 주신 자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
선물을 주신 분은 받은 자가 기쁨으로 사용하고 요긴해 하는 것을
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의 응답으로 여기신다고 생각했습니다.
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, 받은 자가 제대로 활용하지
못할 때 섭섭함이 생기는 것입니다.

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!
우리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고, 믿음을 주시고,
영생을 주시고, 복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.
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요?

출처 - 주님, 거기 계세요? / 홍정식 (2002/04/18)

♪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 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